



5곳~ 참여정부까지 장관 3명뿐

<5> 통일부

통일부는 말 그대로 통일 및 남북 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 교육, 기타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 행정기관이다.

지난 1969년 국토통일원으로 발족했으며 1990년 12월 통일원으로 개칭, 장관도 부총리급으로 격상된데 이어 1998년 2월 통일부로 승격·개편되었다.

과거 통일부는 공직 사회에서 비선호 부처로 꼽혔으나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위상이 높아지며 인기 부처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통일부는 대북 관계를 바탕으로 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처 특성상 타 부처에 비해 그 인사와 인맥에 있어 지역적



국민의 정부 이후 2명 배출...현 고위급은 신언상 차관 등 8명

편차는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그러나 제5공화국부터 문민정부까지 영남정권 아래서 통일부 내의 호남 인맥은 그다지 주목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전체 14명의 장관 가운데 호남 출신은 노태우 정권 시절에 기용된 최영철 통일원 장관이 유일하다.

이에 반해 영남 출신은 5명(손재식,

박동진, 허문도, 김덕, 권오기), 수도권 출신 4명(이세기, 이흥구, 최호중, 나용배), 이북 출신 3명(홍성철, 이영덕, 이병석), 충청 출신 1명(한완상) 등으로 집계됐다. 이흥구씨는 이 기간 동안 두 차례나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의 통일부 장관 7명 가운데서도 호남 인맥은 전북 출신의 정세현, 정동영씨 2명으로 집계됐다.

북한 출신 2명(임동원, 강인덕), 충청 출신 2명(홍순영, 이재정)으로 나타났으며 경기 출신 1명(이종석), 경남 출신이 1명(박재규) 등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임동원씨와 정세현씨는 2차례 통일부 장관을 지냈다.

한편, 제5공화국부터 참여정부 현재까지 통일부 차관 12명 가운데 호남 출신은

김동섭, 송영대, 정세현, 신언상씨 등 4명으로 나타났고 영남 출신은 2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과 충청 출신도 각각 2명씩 서울과 제주 출신도 각 1명씩으로 집계됐다.

한편, 통일부가 제출한 부이사관급 이상 고위공무원 30명 가운데 호남 출신은 신언상 차관(전남 영광)을 필두로 조영남 혁신재정기획본부장(광주), 김윤희 경험기획관(광주), 김용재 통일교육원 교수부장(장흥), 정동문 남북산업협력 팀장(함평), 김형성 정책의제관리팀장(보성), 유종렬 남북회담관리팀장(부안), 서호 부이사관(광주) 등 모두 8명으로 집계됐다.

호남 출신 통일부 고위 관계자는 "핵심 권력부처가 아니라는 점도 있었겠지만 지난 영남 정권에서의 통일부 호남 인맥은 비교적 안정된 구조를 유지했다"고 말했다.

임동원기자 tuim@kwangju.co.kr

현장과 시각

전남도 공무원 아직 멀었다



박치경

정치부 차장

전남도에서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 사무관은 최근 극심한 무기력증에 시달렸다. 업무협조 등에 건설인 동료직원들 때문이었다.

이 사무관은 김영록 행정부지사가 중앙 정부의 지나친 업무 규제와 잘못된 제도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비합리적인 실상에 관한 자료 수집을 지시,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관련 부서에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나 약속을 제대로 지킨 곳은 드물었다. 1주일 가까이 몇몇 부서에서 자료를 건너왔다. 그나마 수박 겉핥기 식이었다. 문화관광, 산업, 해양수산 분야 등 조금만 들여다보아도 정부 규제 때문에 사업이 지지부진한 케이스가 수도룩하지만 이를 사례별로 파악해 보고한 곳은 거의 없었다. 규제 완화와 잘못된 제도개선을 목이 터져라 외쳐대도 기대가 희미한 관에 정작 이를 다루는 공무원들의 태도는 너무나 안이했다.

동료들의 부실한 협조 때문에 부지사에게 제출할 보고서를 만드는데 큰 애를 먹은 그는 "만일 고위 간부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더라면 그랬을 지 의문이다. 차라리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업무 부서를 신설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예산타령'은 공무원들이 가장 즐겨쓰는 핑계거리다. 지난 10일 전남도가 도내 외국인 투자 기업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은 전형적인 구태였다. 여수 화양지구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해 리조트 단지를 만들고 있는 (주)일상 측은 오는 2009년 골프장이 완공되지만 진입로가 1년 후에야 건설될 예정이라며 조기 개통을 촉구했다.

그러나 전남도 관계자의 답변은 '예산'대로였다. "도로개설 등 규모가 큰 사업은 예산문제가 따라 공기를 앞당기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자세한 내용은 파악해 보겠다"는 게 유일한 '방책'이었다. 위의 두 가지 사례는 무한경쟁시대에 아직도 전남도 공무원들의 자세가 전혀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박준영 지사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전남의 명운을 바꾸자고 외치지만, 직원들은 개발사업을 가로막는 규제가 얼마나 무서운 지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시시 때때로 혁신회의다, 다짐대회다해서 요란하지만 막상 문제가 생기면 이런 구실 저런 이유로 적당히 넘어간다.

외부 투자자들이 지역에서 사업을 벌이며 애로가 크다고 호소해도 강 건너 불구경이다. 어렵사리 유치한 투자자본이 열매 맺기까지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는 프로 공무원들을 기대하는 것은 어쩌면 과욕인가? 공무원들에게 현실의 높은 벽을 무너뜨리고 지역발전을 앞당겨달라고 외치기에는 아직 한참 멀어 보인다.

unipark@kwangju.co.kr



경의선 열차에 쏠린 눈 오는 17일로 예정된 경의선·동해선 열차 시험운행을 앞두고 13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을 찾은 관광객들이 경의선 남측 최북단 역인 도리산역으로 향하는 경의선 열차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진보 시민사회진영 '독자창당' 가속

제도권 밖 제3세력화 대선후보 배출... 6월 창당 가시화

진보진영 시민사회세력의 독자창당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제도정치권 밖에서 제3의 정치세력을 형성한 뒤 독자 대선후보까지 배출한다는 구상이 현실화되면서 6월 창당을 위한 작업이 가시권에 접어들 분위기가이다.

독자창당 물밑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최열 환경재단 대표는 시민사회세력과 전문가, CEO(최고경영자) 그룹 등 각계인사들을 접촉하면서 신당 창당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최 대표는 13일 "정치일정상 5~6월에는 신당창당 선언이 이뤄져야 한다"며 "시민사회는 물론 각계 전문가, 문화, 예술계, 여성, 법조인, 학계 인사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부적으로는 5월 중 발기인대회를 개최하고 다음달 창당준비위를 결성한 뒤 중앙당 창당대회를 갖는 일정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진보진영 시민사회 원로들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 하루 전인 17일 시국선언을 통해 "현실은 대통령 이 되고자 하는 후보자들을 중심으로 이

합집산과 갈등만을 반복하고 있고, 위기의 한국사회를 이끌어 나갈 어떤 정책대결도, 믿을 만한 정치세력도 찾아볼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표명할 계획이다.

시국선언에는 대선주자 원탁회의의 및 가칭 국민경선추진위원회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진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오종일 목사, 이해화 목사 등 종교계 원로들과 최열 대표, 미래구상 핵심멤버인 정대화 상지대 교수, 김호기 연세대 교수, 백승현 변호사, 안병욱 가톨릭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이와 함께 당초 진보진영 독자창당의 주체로 관심을 모았던 '미래구상'과 '통합·변영 국민운동'은 오는 15일 '통합·변영을 위한 미래구상' 통합대회를 가진 후 최 대표가 준비중인 신당에 합류하는 방식으로 활동방향을 정리해 가고 있다.

시민사회세력이 추진중인 독자정당은 결국 '제3의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문국현 유한킴벌리 사장 등 특정인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

美, 북 BDA자금 중계은행 찾아... 조만간 송금될 듯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는 북핵 폐기의 결실물이 되고 있는 방코델타아시아(BDA) 동결자금 2천500만달러를 중계하려는 미국 은행을 마침내 찾아냈으며 돌발변수가 없는 한 송금이 수일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미 워싱턴 타임스가 11

일 단독 보도했다. 이에 따라 불법자금이 일부 포함된 BDA 은행 내 동결 북한자금의 중계은행을 찾기 위한 미 관리들의 지난 1주일간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미 국무부와 재무부측 변호사들은 미국내법을 위반하지 않고 BDA 은행내 52개 계좌에 분산돼 있는 북한관련 자금의 송금을 허용하는 최선의 방안을 찾고 있다고 타임스는 소개했다.

연합뉴스

Cell Banking

셀뱅킹은, 건강할때 자신의 세포를 보관하였다가 암(癌)등 주요 질병 발생시 치료에 사용하는 1:1 맞춤치료의 시작입니다.

각 지역별 지정모집 한국줄기세포은행 광주지사 (062)373-3475 (세포치료) 아래 지정 병원과 상담하세요 www.koreacellbank.com

지정 병원 전남동부지점(순천, 여수, 광양) 061-743-3475 · 광주 광신 천안하나산부인과 973-0910 이항의원 953-7582 고은의원 951-9011 다나가정의학과의원 955-1888 소촌연합의원 943-5875 박가정의학과의원 941-0531 남군 한중가정의원 675-8075 장내과의원 225-1616 이성재비인후과 366-2538 동구 본정형의과의원 236-3501 은누리가정의원 234-7571 특구 한술내과의원 575-0075 성보의원 526-7772 안지정형의과의원 571-2277 상각연합의원 251-0042 장수연합의원 062-266-7598 희망의원 573-5451 현대정형외과 529-1101 국연근피부과의원 573-9975 한빛신경외과의원 574-7582 유병전내과의원 269-3300 서구 퍼스트의원 384-0044 다나통증의학과의원 651-7578 한사랑통증의학과의원 365-7582 호암산부인과의원 681-0800 · 전남 광양 정외과의원 792-8561 나주 이팔수의과의원 332-9800 목포 성모의원 242-5554 청호의원 274-7077 이대다의원 274-8275 순천 금강병원 720-3500 모두편안내과 725-7568 영광 김기영내과 353-7521 장성 삼성의원 395-3800 김내과의원 393-7533

(株) 행복출발

창사 이래 10년 동안 오직 재혼만 전문으로 열과 성을 다한 결과 이제는 국내 최대 재혼 회원을 보유하고 최고 재혼교제율을 자랑하고 있으며 각종 언론매체에서 집중 조명 되고 있는 국내 대표 재혼정보회사입니다.

회원수 1위 한국대표 재혼정보회사

다양한 직업의 노블레스 여성회원 다수 보유

초대줄 커플매니저 0명 모집

(株) 행복출발 (062) 527-3388

호남지역총괄 인터넷 주소창에 주소(D) 마늘닷컴 >go 을 치세요